

#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및 인간중심돌봄이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김 하 연<sup>1)</sup> · 송 민 선<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7.5%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 20.6%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1]. 65세 이상 노인의 84.0%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과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2]. 전체적인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노인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 의료이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3].

노인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와 더불어 이해력 부족과 같은 인지능력이 감소하면서 공감적 사고에 결함을 보인다[4]. 이에 간호사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5]. 간호사의 공감이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대상자를 존중하면서 균형감 있는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감성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6].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의 정서적 측면을 함께 돌보는 공감능력이 중요하며[7],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노인에게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간호를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급성기의 노인환자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는 인력의 부족과 업무량의 증가로 대상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9]. 또한, 부족한 인력과 증가한 업무의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에게 압박이 되어 간호의 질을 저하시켜 환자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9]. 따라서 급성기 노인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7]. Kwon과 Jang [10]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근무환경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진 중심의 업무수행과 치료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인간중심돌봄이란 대상자의 인권을 바탕으로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상호과정에서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12]. 노인은 젊은 개인보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치료 요구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대상자의 질병, 치료 환경, 사회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등에 따라 인간중심돌봄 수혜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여 인간중심돌봄의 혜택이 필요한 우선순위 대상이다[13]. 하지만, 현재 의료 환경은 의료 제공자가 노인환자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복합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복합 건강 문제를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11]. 이에 간호사는 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그들을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노인의 고유한 요구도와 상황,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11]. 특히 간호근무환경은 돌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노인간호실천에 대한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종합병

**주요어 :** 노인간호, 공감, 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간호사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1)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https://orcid.org/0000-0001-5242-9560>)

2)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https://orcid.org/0000-0001-8816-5122>) (교신저자 E-mail: [mssong@konyang.ac.kr](mailto:mssong@konyang.ac.kr))

투고일: 2023년 3월 2일 수정일: 2023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20일

원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은 연령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노인간호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돌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15].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기혼자이며 노인에 대한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16]. 특히 간호사의 높은 공감능력은 결혼상태 및 종교 여부, 직위, 특수병동, 노인간호 선호도, 노인과 동거 경험, 노인 관련 수강 경험, 노인 복지관 실습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17] 노인간호실천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인간호실천은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에서 실천되고 [10], 간호근무환경은 돌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으나[14], 노인간호실천과 이러한 변수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노인입원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간호실천 향상을 위한 간호사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및 인간중심돌봄이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K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노인 환자가 입원하는 부서로 노인을 직접 간호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1) 근무 기간이 최소 6개월 미만인 자, 2) 노인을 직접 간호하지 않은 부서인 소아병동,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외래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였다. 근무 기간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고려하였으며 간호근무환경 평가 문항을 고려하여 간호관리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 다중회귀분석의 유의수준  $\alpha$ 는 .05, 효과 크기는 중간수준인 .15, 검정력 .90으로 하였으며[18], 예측요인 16개로 최소 표본크기는 175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9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11부(탈락률 6.0%)를 제외하여 총 17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연구 도구

###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종교, 결혼상태, 학력, 건강 상태, 현재 근무부서, 총 임상 경력, 현재 부서 근무 경력, 근무부서 만족도, 노인 동거 경험, 노인 동거 기간, 노인 봉사 경험의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측정은 Monica [19]가 개발한 공감 측정 도구인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 (ECRS)을 Song [17]이 노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총 60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6이며, Song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의 측정은 Lake [20]의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PES-NWI)를 Cho 등[21]이 한국어판으로 번역 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판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총 29문항으로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문항, 병원 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9문항, 간호 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 4문항,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4

문항, 의사와의 협력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2이며, Cho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인간중심돌봄

인간중심돌봄의 측정은 Edvardsson 등[22]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돌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을 측정할 수 있게 개발한 도구인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P-CAT)를 국내에서 Tak 등[23]이 한국어판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판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총 13개 문항으로 개별화된 돌봄 7문항,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이며, Tak 등[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노인간호실천

노인간호실천의 측정은 임상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노인의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노인간호를 실천하는가에 관한 평가 도구로 Choi [2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총 16문항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하고 있다’ 4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를 설명 후 간호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병원 계시에 연구에 대한 홍보문구를 부착하여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설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 후 봉투에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개별화된 상자에 넣도록 하여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위원회(IRB No. KYUH 2022-04-022-003)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문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연구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나 강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해서 설명하고 사생활이 존중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 후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 후 연구대상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컴퓨터로 데이터화 한 후 연구자 외 접근이 불가하도록 비밀번호가 설정된 장소에 보관 후 연구대상의 개인정보는 3년 후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으며,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또한 영구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32±3.58세로, 25세 미만 45명(25.3%), 25세 이상 30세 미만 98명(55.1%), 30세 이상 35명(19.6%)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12명(6.7%), 여성 166명(93.3%)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29명(72.5%)으로 많았으며, 미혼이 154명(86.5%)으로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160명(89.9%)으로 많았으며, 지각된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인지한 대상자가 116명(65.2%)으로 많았다. 현재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 50명(28.1%), 외과계 병동 50명(28.1%), 응급실과 중환자실 56명(3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2명(12.3%)이었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4.40±3.32년으로 6개월 이상 3년 미만이 70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부서 근무 경력은 평균

2.80±2.56년으로 3년 이상이 71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부서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8명(49.4%)으로 많았다. 노인 동거 경험은 없는 경우가 121명(68.0%)으로 많았으며, 노인과의 평균 동거 기간은 10.11±8.96년으로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57명 중 동거 기간은 10년 이상이 24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봉사 경험은 없는 경우가 134명(75.3%)으로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9±0.37점이었으며,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평균 2.62±0.39점, 인간중심돌봄은 5점 만점에 평균 2.97±0.52점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평균 3.22±0.42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를 보면, 근무부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86, p=.009). 사후검정결과 근무부서 만족도가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Age (years)	<25	45 (25.3)	27.32±3.58
	≥25-<30	98 (55.1)	
	≥30	35 (19.6)	
Gender	Male	12 (6.7)	
	Female	166 (93.3)	
Religion	Yes	49 (27.5)	
	No	129 (72.5)	
Marital status	Single	154 (86.5)	
	Married	24 (13.5)	
Education level	College	18 (10.1)	
	≥University	160 (89.9)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116 (65.2)	
	Moderate	47 (26.4)	
	Unhealthy	15 (8.4)	
Current work unit	Internal medicine unit	50 (28.1)	
	Surgical unit	50 (28.1)	
	Emergency room, intensive care unit	56 (31.5)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unit	22 (12.3)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s)	≥6month-<3	70 (39.3)	4.40±3.32
	≥3-<5	38 (21.3)	
	≥5-<10	56 (31.5)	
	≥10	14 (7.9)	
Working experience in a current workplace (years)	<1	40 (22.5)	2.80±2.56
	≥1-<3	67 (37.6)	
	≥3	71 (39.9)	
Satisfaction of current workplace	Satisfaction	88 (49.4)	
	Moderate	73 (41.0)	
	Dissatisfaction	17 (9.6)	
Living together with elder	Yes	57 (32.0)	
	No	121 (68.0)	
Length of living together with elder (n=57)(years)	<5	21 (36.8)	10.11±8.96
	≥5-<10	12 (21.1)	
	≥10	24 (42.1)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	Yes	44 (24.7)	
	No	134 (75.3)	

<Table 2> Levels of Empathy for the Elderly,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s	Mean±SD	Range
Empathy for the elderly	3.69±0.37	1-5
Nursing work environment	2.62±0.39	1-4
Person-centered care	2.97±0.52	1-5
Geriatric nursing practice	3.22±0.42	1-4

‘불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노인간호실천이 높았다 (Table 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인간호실천은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r=.58, p<.001$ ), 간호근무환경( $r=.29, p<.001$ ), 인간중심돌봄

<Table 3> Difference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é
Age (years)	<25	3.28±0.47	1.18	.309	
	≥25-<30	3.20±0.44			
	≥30	3.12±0.42			
Gender	Male	3.25±0.52	0.37	.705	
	Female	3.20±0.41			
Religion	Yes	3.19±0.43	-0.37	.706	
	No	3.21±0.41			
Marital status	Single	3.21±0.41	0.51	.606	
	Married	3.16±0.48			
Education level	College	3.14±0.43	-0.72	.469	
	≥University	3.21±0.4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3.23±0.43	-0.96	.389	
	Moderate	3.17±0.42			
	Unhealthy	3.21±0.42			
Current work unit	Internal medicine unit	3.14±0.37	0.67	.571	
	Surgical unit	3.20±0.45			
	Emergency room, intensive care unit	3.26±0.45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unit	3.24±0.37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	≥6month-<3	3.08±0.43	0.46	.705	
	≥3-<5	3.16±0.33			
	≥5-<10	3.18±0.44			
	≥10	3.23±0.46			
Working experience in a current workplace (years)	<1	3.29±0.42	0.76	.468	
	≥1-<3	3.16±0.39			
	≥3	2.98±0.39			
Satisfaction of current workplace <sup>†</sup>	Satisfaction <sup>a</sup>	3.75±0.33	4.86	.009	c<a
	Moderate <sup>b</sup>	3.64±0.37			
	Dissatisfaction <sup>c</sup>	3.57±0.45			
Living together with elder	Yes	3.17±0.38	-0.76	.445	
	No	3.22±0.43			
Length of living together with elder (n=57) (years)	<5	3.08±0.29	2.00	.153	
	≥5-<10	3.07±0.43			
	≥10	3.30±0.45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	Yes	3.27±0.41	1.10	.272	
	No	3.19±0.42			

<sup>†</sup>Scheffé test.

( $r=.26,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간호근무환경( $r=.21, p=.004$ ), 인간중심 돌봄( $r=.29,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근무환경은 인간중심돌봄( $r=.60,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노인간호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근무부서 만족도와 노인간호실천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명목적도인 근무부서 만족도는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값은 .850으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은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의 한계는 0.954로 0.1보다 크며, 분산팽창계수 값이 1.048로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에 대해 산출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52.16, p<.001$ ).

회귀분석 결과,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beta=.55, p<.001$ ), 간호근무환경( $\beta=.17, p=.005$ )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실천에 대하여 전체 설명력은 33.4%로 확인되었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5점 만점 중 3.69점으로 중간 점수 이상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3.75점[16],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 3.78점[8],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 3.71점[17]으로 나타나 중간 점수 이상을 보였다. Song [17]은 간호사들의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다른 일반 환자 대상자에 대한 공감력 수준과 차이가 없다고 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병원 규모나 대상자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 중 2.62점이었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2.45점[14]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의 2.73점으로 나타난 연구에 비해[25] 본 연구의 간호근무환경은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과 비교하여 대학병원의 응급 상황과 급성기 질환 환자 대응, 복잡한 조직 체계 등에 의해 간호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은 5점 만점 중 2.9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인간중심돌봄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3.25점으로 나타나[26], 본 연구에서의 인간중심돌봄은 낮은 편이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

〈Table 4〉 Correlation among Empathy for the Elderly,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s	Empathy for the elderly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Geriatric nursing practice
	$r$ ( $p$ )			
Empathy for the elderly	1			
Nursing work environment	.21 (.004)	1		
Person-centered care	.29 (<.001)	.60 (<.001)	1	
Geriatric nursing practice	.58 (<.001)	.29 (<.001)	.26 (<.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the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40	.27		1.45	.140
Empathy for the elderly	.62	.04	.55	8.97	<.001
Nursing work environment	.18	.06	.17	2.84	.005
	F=52.16	$p<.001$	$R^2=.373$	Adjusted $R^2=.334$	

료 후 유지기에 해당하는 노인 환자 중 지속적인 의료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입소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입소 노인 환자에 대한 욕창 개선율,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등의 평가를 위해 개별화된 인간중심돌봄 제공 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학병원 간호사는 노인에게 치료중심의 간호와 함께 노인의 개별적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중심돌봄을 기초로 간호를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돌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연구도구를 간호사 대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향후 간호사 대상의 인간중심돌봄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 중 3.22점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3.21점으로 유사하였다[15]. 반면,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의 3.63점으로 나타난 연구에 비해[16] 본 연구의 노인간호실천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노인 환자에게 일반환자와 큰 차이가 없는 질병 위주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제외한 노인 환자들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상주가 필요하며, 식사 보조, 개인위생, 자가간호 등의 영역은 간호사가 직접 실천하지 않아 요양병원에 비해 노인간호실천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차이를 보면 근무부서 만족도가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노인간호실천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 노인간호 선호 정도, 노인관련 교육 경험[15],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 경력에서[16]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본 연구는 근무부서 만족도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근무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져 적정 간호인력 유지가 가능해져 [10] 노인간호실천을 보다 높게 행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간중심돌봄이 높고, 노인간호실천을 높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8,16,18]. 따라서 노인간호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능력은 선천적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2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8,16,18]. 간호사들이 대학생때부터 노인간호학 등의 학습을 하였다고는 하나 노인간호실천에서 차이를 보인 노인에 대한 교육 경험[15]에 대해 해당 학습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아 프로그램 구성시에 대상자들에게 개별화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간호 교육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인간호실천을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과 Jang [10]의 연구에서도 간호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간호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프로그램 개발 시 실제 간호근무환경에서 진행하거나, 유사한 간호근무환경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중심돌봄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을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gong과 Lee [26]의 연구에서 인간중심돌봄은 간호 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중심돌봄의 환경에서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은 환자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간호근무환경이었다. 이는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감능력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6]. 공감은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환자와 간호사의 공감적 관계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처방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다양한 건강요구를 가진 노인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게 하고, 신체적 부분만이 아닌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전인간호를 인지하여 노인간호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16]. 또한 노인간호실천에 간호근무환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이는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대상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0]. 간호사의 임상적 간호행위 판단은 개인적인 특성과 간호근무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으므로[29], 환자의 입원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간호사의 효율적인 능력 발휘를 위한 간호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따라서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위해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높은 공감능력과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시행된 공감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과중한 업무, 많은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이 되풀이되는 환경으로, 제대로 된 간호 행위의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14]. 간호사 대상의 Hojat [27]의 연구에서 역할 교환과 입원환자 경험은 간호사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의 연구에서 노인유사체험은 간호사와 노인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30]. 이를 바탕으로 간

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을 위한 공감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의 상황을 설정 후 역할 교환과 노인유사체협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간호사의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인구의 대학병원 입원의 증가로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간호연구 측면으로 고령화 시대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간호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간호실무 측면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고,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을 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력문제를 겪고 있는 간호사를 둘러싼 간호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증가가 중요하므로, 대학병원 간호 관리자와 병원 관리자는 이를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간호교육 측면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노인간호실천을 위한 간호사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 178명을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간호근무환경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근무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는 지역 소재의 일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 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 대상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간호실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간호실천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22 statistics on the aged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22 [cited 2023 Mar 1].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g=&act=view&list\\_no=420896&ref\\_bid=](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g=&act=view&list_no=420896&ref_bid=)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cited 2023 Mar 1]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 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 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
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alysis of the status of health care services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future prospects [Internet].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9 [cited 2023 Mar 1] Available from: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538>
4. Richter D, Kunzmann U. Age differences in three facets of empathy: Performance-based evidence. *Psychology and Aging*. 2011;26(1):60-70. <https://doi.org/10.1037/a0021138>
5. Kang HS, Sung KW.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5;17(1):29-37. <https://doi.org/10.17079/jkgn.2015.17.1.29>
6. Lee YJ, Seomum GA. Impact of unit-level nurse practice environment on nurse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6):355-362. <https://doi.org/10.14400/JDC.2016.14.6.355>
7. Lee GE, Cho JK, Ham SH, Jeong MY. Nurses' experiences in caring for elderly inpatients in a medical center.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4;16(3):220-230. <https://doi.org/10.17079/jkgn.2014.16.3.220>
8. Ko WR, Han JH. The effect of the knowledge, care attitude, and empathy of general hospital nurses on their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22(11):628-637.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628>
9. Oshod TO, Bruneau B, Crockett R, Kinchington F, Nayar S, West E.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quality of care: Content analysis of comments made by registered nurses responding to the essentials of magnetism II scale. *Nursing Open*. 2019;6(3):878-888. <https://doi.org/10.1002/nop2.268>
10. Kwon KO, Jang HY.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s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22;24(2):123-132.



- <https://doi.org/10.17079/jkgn.2022.24.2.123>
11. Boltz M, Capezuti E, Zwicker D, Fulmer TT. Evidence -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6th. 2022. Pennsylvania: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2. Song IS. Human-centered care ‘Humanitude’ at the municipal elderly dementia nursing hospital case study on practic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2021;41:179-206. <https://doi.org/10.22589/kaocm.2021.41.179>
  13. Kogan AC, Wilber K, Mosqueda L. Person centered care for older adults with chronic conditions and functional impairmen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16;64(1):e1-e7. <https://doi.org/10.1111/jgs.13873>
  14. Ann YM, Jang KS, Park HY. Effects of compass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n caring behaviors of clinical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8;12(4):17-30. <https://doi.org/10.12811/kshsm.2018.12.4.017>
  15. Kang MR, Jeong K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7):127-137. <https://doi.org/10.5392/JKCA.2018.18.07.127>
  16. Kim YK, Kwon SH.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7;19(2):203-13.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17. Song ES. The factors of empathy for older patient in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65 p.
  18. Seol JI, Seo JY. The influences of general hospital nurse’s perception and empathy for the elderly on geriatric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e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22;33(3):413-26. <https://doi.org/10.7465/jkdi.2022.33.3.413>
  19. Monica ELL.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81;4(4):389-400. <https://doi.org/10.1002/nur.4770040406>
  20. Lake ET. Development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02;25(3):176-188. <https://doi.org/10.1002/nur.10032>
  21. Cho EH, Choi MN, Kim EY, Yoo LY, Lee NJ.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for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41(3):325-332. <https://doi.org/10.4040/jkan.2011.41.3.325>
  22. Edvardsson D, Fetherstonhaugh D, Nay R. Promoting a continuation of self and normality: person-centered care as described by people with dementia, their family members and aged care staff.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10;19(17-18):2611-2618.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9.03143.x>
  23. Tak YR, Woo HY, Uou SY, Kim J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5;45(3):412-419. <https://doi.org/10.4040/jkan.2015.45.3.412>
  24. Choi HJ. The research on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old age patient [master's thesis]. [Seoul]: Kyunghee University; 2002. 65 p.
  25. Lee YM.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job stress and person-centered care in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8;20(5):2635-2647. <http://doi.org/10.37727/jkdas.2018.20.5.2635>
  26. Sagong H, Lee GE. Perso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6;27(4):309-318. <https://doi.org/10.12799/jkachn.2016.27.4.309>
  27. Hojat M. Ten approaches for enhancing empathy in health and human services culture.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2009;31(4):412-450.
  28. McCabe C. Nurse-patient communication: An exploration of patents' experienc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4;13(1):41-49.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4.00817.x>
  29. Jung MR, Jeong E. Effects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clinical nurses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2):277-285.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77>
  30. Joung HY, Hyun HJ. The effects of senior simulation programs on elderly care facilities employees' attitudes for elderly care, understanding of the aged,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2;23(2):222-230. <https://doi.org/10.0000/jkachn.2012.23.2.222>

# Effects of Empathy for the Elderly,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are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

Kim, Ha Yeon<sup>1)</sup> · Song, Min Sun<sup>2)</sup>

1) 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y for the elderly,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and factors that affect geriatric nursing practice. **Method:** W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178 nurses between May 23 and June 21, 2022 at a university hospital in city D. W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data analysis. **Results:** We observ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es' geriatric nursing practice and empathy for the elderly,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are. Empathy for the elderl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are,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son-centered care. Empathy for the elderly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significantly affected geriatric nursing practice.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33.4%. **Conclusion:** Greater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at promote empathy for the elderly are necessary to improve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population. Furthermore, adequate manpower and material support are important to improve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mong nurses employed at university hospitals.

**Key words :** Empathy; Geriatric Nursing; Nurse; Patient-centered Care; Work Environment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master' thesis of the first author Kim Ha Yeon from Konyang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Min Sun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Republic of Korea

Tel: +82-42-600-8566, Fax: +82-42-600-8555, E.mail: mssong@konyang.ac.kr